

탈모의 치료에 다용되는 약물에 대한 문헌적 고찰

박수곤* · 조희근 · 양미성 · 최진봉 · 김선종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교실

Bibliographic Study on Herbal Medicine for Alopecia

Soo Gon Park*, Hee Guen Jo, Mi Sung Yang, Jin Bong Choi, Sun Jong Kim

Department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basis of in vivo or clinical study about alopecia. We investigated the prescriptions of alopecia by researching oriental medicine literature. We found the prescriptions used for alopecia. And we surveyed the frequency and classification of the herbs used for alopeci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recorded as follows. The most frequently used single herbs in the prescriptions were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Rehmanniae Radix Preparat(熟地黃), Cnidii Rhizoma(川芎), Glycyrrhizae Radix(甘草), Poria(茯苓), Paeoniae Radix Alba(白芍藥). Herbs specifically frequently used in the prescriptions of alopecia were as follows. Polygoni Multiflori Radix(何首烏), Rehmanniae Radix(生地黃), Cuscutae Semen(菟絲子), Bupleuri Radix(柴胡), Scutellariae Radix(黃芩), Vitis Fructus(蔓荊子), Aconiti lateralis Preparata Radix(附子). Herbs frequently used were classified by property. The result was as follows. (()-The number of herbs) 補益藥(32), 解表藥(18), 清熱藥(15) 收澀藥(9), 活血祛瘀藥(8), 利水滲濕藥(8).

Key words : alopecia, herb, prescription

서 론

사람의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라는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된다. 성장단계에 있는 모발은 한 달에 1 cm가량 꾸준히 자라게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퇴행기를 거치게 되고 휴지기에 접어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 이러한 모발의 수명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4년에 이르는데, 모발의 생성과 탈락이 평형을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인 모발의 기본외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자라던 모발이 어떤 이유에 의해 빠지게 되어 모발이 결여되거나 그 수가 감소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를 탈모증이라 한다¹⁾.

과거에 탈모는 하나의 독립된 질환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다른 질환에 동반된 부수적인 증상의 하나로 여겨졌다. 탈모의 발병 요인 역시 단순히 유전으로만 여겨졌고 다른 원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부질환의 증가와 같은 사회 환경적인 원인과 약물남용, 잦은 염색과 파마, 불규칙한 식생활과 지

나친 다이어트와 인스턴트식품의 남용으로 인한 영양불균형 등과 같은 개인적인 원인으로 탈모의 발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탈모로 고민하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²⁾. 이 때문에 임상에서는 탈모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탈모증의 치료에 환자에 대한 변증을 통해 침구요법과 약물요법, 약침요법^{3,4)}, 외용약을 이용한 국소약물도포요법⁵⁻⁷⁾,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치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의료계에서는 새로운 탈모치료 방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한의학계에 보고된 탈모에 대한 임상연구는 약침^{3,4)}을 이용한 원형탈모증의 치험례 보고와 한방 외용제를 이용한 탈모 치료에 대한 연구⁵⁻⁷⁾가 있으며, 실험연구로는 한방 외용제를 이용한 원형탈모 생쥐의 발모 효과에 대한 연구⁸⁻¹⁰⁾가 있다. 탈모에 대한 문헌적 연구¹¹⁻¹³⁾도 있지만, 그 중 탈모의 치료에 이용되는 처방이나 약물에 대한 문헌적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에 저자는 탈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의학 서적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탈모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처방과 이들 처방을 구성하는 약물을 조사하여, 탈모의 치료에 이용되는 약물 중 사용빈도가 높은 약물을 파악하여 향후 탈모

* 교신저자 : 박수곤, 전남 목포시 상동 834 동신대학교 부속 목포한방병원

· E-mail : dajiang@hanmail.net, · Tel : 061-280-7921

· 접수 : 2010/03/30 · 수정 : 2010/04/29 · 채택 : 2010/05/11

치료를 위한 실험연구나 임상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여 약간의 智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연구재료

탈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의학 문헌을 조사하여 그곳에 수록된 처방과 구성 약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연구방법

- 1) 탈모의 치료에 사용된 처방을 문헌조사를 통해 찾고, 각각의 약물구성을 조사하였다.
- 2) 탈모의 치료에 사용된 약물의 사용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 3) 다용된 약물을 본초학에 근거하여 본초학적인 분류로 묶어서 많이 사용된 분류를 조사하였다.

3. 각 문헌에 제시된 탈모의 치료에 사용된 처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able 1. Prescription of alopecia in each bibliography

NO.	Bibliography	Prescription
1	外臺秘要 ¹⁴⁾	茯苓朮散方 千金療髮落不生方 千金髮落方 膏摩之方 頭風髮落并眼暗方 小髮落不足爲難方 集驗療白禿方 千金松瀝煎 千金翼王不留行湯 必效主禿瘡方 千金療赤禿方
2	聖濟總錄錄要 ¹⁵⁾	五味子膏方 早蓮汁方
3	醫學入門 ¹⁶⁾	地黃酒 腎氣丸 天門冬膏 梧葉煎
4	東醫寶鑑 ¹⁷⁾	八物湯 黃芪建中湯 四物湯 地黃酒 天門冬膏 滋榮散 三聖膏 菊花散 巫雲散 二仙丸 六味地黃丸 防風通聖散 去芒硝確大黃 四物湯酒製合和作小劑煎 生禿烏雲油 金珠綠雲油 早蓮草 半夏 芭蕉油 胡麻熊脂 白鴿糞 羊糞 猪鬃膏
5	東垣十書 ¹⁷⁾	八物湯 黃芪建中湯 四物湯
6	萬病回春 ¹⁷⁾	滋榮散 三聖膏 菊花散 巫雲散 二仙丸 生禿烏雲油 金珠綠雲油 六味地黃丸
7	丹溪心法 ¹⁷⁾	防風通聖散 去芒硝 惟大黃 四物湯酒製合和作小劑煎
8	外科正宗 ¹⁸⁾	神應養真丹 海艾湯
9	石室秘錄 ¹⁹⁾	桑葉
10	外科大成 ²⁰⁾	神應養真丹 海艾湯
11	醫宗金鑑 ²¹⁾	神應養真丹 海艾湯
12	名醫類案 ²²⁾	補中益氣湯 加 麥門冬 五味 六味地黃丸 加 五味通聖散 六味地黃丸
13	金櫃要略重編 ²³⁾	桂枝加龍骨牡蠣湯
14	韓方外科 ²⁴⁾	神應養真丹 海艾湯 防風通聖散 六味地黃湯 加 苦蔘
15	最新韓方診療 ²⁵⁾	柴胡加龍骨牡蠣湯 桂枝加龍骨牡蠣湯 大柴胡湯 防風通聖散 加味逍遙散 柴胡加桂枝湯 六味丸 八味丸
16	醫學心悟 ²⁶⁾	麥芽散
17	診療要鑑 ²⁷⁾	生毛丹
18	中醫症狀鑑別診斷學 ²⁸⁾	通竅活血湯
19	實用東西醫學臨床總書 ²⁹⁾	首烏延壽丹 血府逐瘀湯 補腎生髮丸 首烏生髮湯 桑麻丸 丹首生血靈 神應養真丹 逍遙散 通竅活血湯 七寶美髯丹 苜蓿子方 生髮斑禿湯 涼血消風散 祛濕健髮湯 生髮脂溢脫毛湯
20	韓醫皮膚外科學 ³⁰⁾	四物湯 六味地黃湯 涼血消風散 通竅活血湯 逍遙散 祛濕健髮湯 萆薢滲濕湯 枇杷清肺飲 神應養真丹 八珍湯 十全大補湯
21	漢方臨床四十年 ³¹⁾	防風通聖散 大柴胡湯 小柴胡湯 神應養真湯 桂枝加龍骨牡蠣湯 八仙丹 毛髮生毛藥 加味活血湯

4. 탈모의 치료에 사용된 각 처방의 약물구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2).

Table 2. Herbs in each prescription of alopecia

No.	Prescription	Herbs
1	茯苓朮散	白朮 茯苓 澤瀉 豬苓 桂心*
2	千金療髮落不生方	羊糞
3	千金髮落方	百藥 附子
4	膏摩之方	蘭茹 細辛 附子 桂心*
5	頭風髮落并眼暗方	蔓荊實* 桑上寄生 桑根白皮 圭根 白芷 甘松香 零陵香 馬鬃膏 吳麻油 感棗根白皮汁 松葉
6	小髮落不足爲難方	蜀椒 芬草 乾薑 桂心* 蘭茹 附子 細辛
7	集驗療白禿方	羊肉
8	千金松瀝煎	松瀝 丹砂* 雄黃 水銀 黃連 礬石 [§]
9	千金翼黃王不留行湯	王不留行 東引桃皮 蛇牀子 東引茱萸根 苦竹葉 牡荊實 疾黎子 大麻子仁
10	必效主禿瘡方	童子小便 白鴿糞
11	千金療赤禿方	黑樞
12	五味子膏方	五味子 肉從蓉 松脂 蛇牀子 遠志 雄黃 鷄糞白 雌黃 白蜜 兔絲子 猪脂
13	早蓮汁方	早蓮草 鐵分
14	地黃酒	糯米 生地黃
15	腎氣丸	熟地黃 山藥 山茱萸 澤瀉 茯苓 牡丹皮 桂枝 附子
16	天門冬膏	天門冬
17	梧葉煎	梧葉
18	八物湯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熟地黃 白芍藥 川芎 當歸
19	黃芪建中湯	黃芪 白芍藥 桂枝 炙甘草 生薑 大棗 膠飴
20	四物湯	熟地黃 白芍藥 川芎 當歸
21	滋榮散	生薑 人蔘
22	三聖膏	附子 蔓荊子 栝子仁
23	菊花散	甘菊 蔓荊子 側柏葉 川芎 白芷 細辛 桑白皮 早蓮根莖花葉
24	巫雲散	膽礬 五倍子 百藥煎** 青胡桃皮 酸石榴皮 訶子皮 木瓜皮 猪牙皂角 何首烏 細辛
25	二仙丸	側柏葉 當歸
26	六味地黃丸	熟地黃 山藥 山茱萸 澤瀉 牡丹皮 白茯苓
27	防風通聖散 去芒硝 惟大黃 合四物湯酒製合和作小劑煎	滑石 甘草 石膏 黃芩 桔梗 防風 川芎 當歸 赤芍藥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 荆芥 白朮 梔子 生薑 熟地黃
28	生禿烏雲油	川椒 ^{††} 白芷 川芎 蔓荊子 零陵 ^{††} 香附子 浸香油
29	金珠綠雲油	蔓荊子 沒石子 躑躅花 訶子皮 白芷 沈香 附子 防風 覆盆子 生地黃 零陵香 芒硝 早蓮草 丁香 卷柏
30	海艾湯(外科正宗)	海艾 菊花 薄荷 防風 藁朮 藿香 甘菊 蔓荊子 荆芥穗 ^{§§}
31	神應養真丹(醫宗金鑑)	羌活 木瓜 天麻 白芍 當歸 兔絲子 熟地黃 川芎
32	海艾湯(醫宗金鑑)	海艾 菊花 蔓荊子 防風 薄荷 荆芥 藿香 甘松
33	補中益氣湯 加麥門冬 五味	黃芪 人蔘 白朮 甘草 當歸身 陳皮 升麻 柴胡 麥門冬 五味子
34	六味地黃丸 加五味	熟地黃 山藥 山茱萸 澤瀉 牡丹皮 白茯苓 五味子
35	桂枝加龍骨牡蠣湯	桂枝 白芍藥 龍骨 牡蠣 生薑 甘草 大棗
36	防風通聖散	滑石 甘草 石膏 黃芩 桔梗 防風 川芎 當歸 赤芍藥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 荆芥 白朮 梔子 生薑
37	六味地黃湯 加苦蔘	熟地黃 山藥 山茱萸 澤瀉 牡丹皮 白茯苓 苦蔘
38	柴胡加龍骨牡蠣湯	柴胡 半夏 龍骨 牡蠣 黃芩 生薑 人蔘 大棗 桂枝 茯苓 大黃
39	大柴胡湯	柴胡 黃芩 芍藥 大黃 枳實 半夏 生薑 大棗
40	加味逍遙散	白芍藥 白朮 知母 地骨皮 當歸 白茯苓 麥門冬 生地黃 梔子 黃柏 桔梗 甘草
41	柴胡加桂枝湯	柴胡 桂枝 黃芩 人蔘 芍藥 半夏 甘草 生薑 大棗
42	八味丸	熟地黃 山藥 山茱萸 牡丹皮 白茯苓 澤瀉 肉桂 附子

43	麥芽散	小麥 疏黃 白朮 涸膠 川椒 ^{††} 生枯礬 ^{¶¶}
44	生毛丹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 羌活 獨活 防風 天麻 甘菊
45	通竅活血湯	赤芍藥 川芎 桃仁 紅棗 ^{***} 紅花 老蔥 ^{†††} 鮮薑 ^{†††} 麝香
46	首烏延壽丹	何首烏 羌活 稀莖草 桑葉 女貞實 忍冬花 ^{§§§} 川杜仲 ^{¶¶¶} 雄牛膝 ^{¶¶¶} 懷慶生地 旱蓮草 金櫻子 黑之麻 桑椹子
47	血府逐瘀湯	當歸 生地黃 桃仁 紅花 枳殼 赤芍藥 柴胡 甘草 桔梗 川芎 牛膝
48	補腎生髮丸	何首烏 黃芪 黨參 黑之麻 紫河車 枸杞子 補骨脂 當歸 熟地黃 羌活 牛膝 側柏葉 苦參 丹參 炒酸棗仁 柏子仁 遠志 熟附子 巴戟天 淫羊藿 炙甘草
49	首烏生髮湯	制何首烏 ^{****} 熟地黃 側柏葉 黃精 枸杞子 骨碎補 當歸 白芍藥 大棗
50	桑麻丸	生黑之麻 冬桑葉 鹿角膠 紫河車 血餘炭 生地黃 熟地黃 女貞子 酒川芎 制何首烏 ^{****}
51	丹首生血靈	丹參 何首烏 川椒 ^{††} 枸杞子 鷄血藤 仙靈脾 ^{††††} 肉桂蓉 紅參 ^{††††} 黃芪
52	神應養真丹 (三因方)	當歸 天麻 川芎 羌活 白芍藥 熟地黃
53	逍遙散	甘草 當歸 茯苓 芍藥 白朮 柴胡
54	七寶美髯丹	赤何首烏 白何首烏 黑豆 赤茯苓 白茯苓 牛膝 當歸 枸杞子 羌活 補骨脂 黑芝麻
55	昔勝子方	昔勝子 ^{§§§§} 黑芝麻 桑椹子 川芎 羌活 何首烏 當歸 白朮 木瓜 白芍藥 甘草
56	生髮斑禿湯	乾地黃 山藥 枸杞子 女貞子 桑椹子 神麴 蠶砂
57	涼血消風散	生地黃 當歸 荊芥 蟬衣 ^{¶¶¶} 苦參 白蒺藜 知母 生石膏 生甘草
58	祛濕健髮湯	炒白朮 豬苓 萆薢 首烏藤 白鮮皮 車前子 川芎 澤瀉 桑椹 赤石脂 生地黃 熟地黃
59	生髮脂溢脫毛湯	生地黃 熟地黃 當歸 白芍藥 女貞子 羌活 木瓜
60	萆薢滲濕湯	萆薢 薏苡仁 黃柏 赤茯苓 牡丹皮 澤瀉 滑石 通草
61	枇杷清肺飲	枇杷葉 桑白皮 黃連 黃柏 人參 甘草
62	十全大補湯	人參 肉桂 川芎 熟地黃 白朮 甘草 茯苓 白朮 黃芪 當歸 白芍藥
63	小柴胡湯	柴胡 黃芩 人參 半夏 炙甘草 生薑 大棗
64	八仙丹	當歸 生乾地黃 羌活 玄參 蒼耳子 薏苡仁 白茯苓
65	毛髮生毛藥	白何首烏 人參 白朮 白茯苓 甘草 熟地黃 白芍藥 川芎 當歸 續斷 香附子 黃芩 黃連
66	加味活血湯	當歸 桃仁 白鮮皮 紅花 川芎 赤芍藥 紅棗 ^{***} 厚蔥 ^{¶¶¶¶} 生薑

* : 桂枝로 정리하였다. † : 蔓荊子の 異名으로 蔓荊子로 정리하였다. ‡ : 朱砂의 異名으로 朱砂로 정리하였다. § : 白礬의 異名으로 白礬으로 정리하였다. || : 桑椹子の 異名으로 桑椹子로 정리하였다. ¶ : 旱蓮草로 정리하였다. ** : 五倍子와 茶葉 등을 발효시켜 얻은 덩이 모양의 물체이다. †† : 蜀椒의 異名으로 蜀椒로 정리하였다. ††† : 零陵香으로 정리하였다. §§ : 荊芥로 정리하였다. |||| : 當歸로 정리하였다. ¶¶ : 白礬의 異名으로 白礬으로 정리하였다. *** : 大棗로 정리하였다. †††† : 熟白으로 정리하였다. ‡‡‡ : 生薑으로 정리하였다. §§§ : 金銀花의 異名으로 金銀花로 정리하였다. ||||| : 杜仲으로 정리하였다. ¶¶¶¶ : 牛膝로 정리하였다. ** * : 何首烏로 정리하였다. ††††† : 淫羊藿의 異名으로 淫羊藿으로 정리하였다. ‡‡‡‡ : 人參으로 정리하였다. §§§§ : 黑芝麻의 異名으로 黑芝麻로 정리하였다. ||||| : 蟬蛻의 異名으로 蟬蛻로 정리하였다. ¶¶¶¶¶ : 熟白으로 정리하였다.

5. 탈모의 치료에 이용된 처방을 구성하는 약물의 종류와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Herbs frequently used and frequency

Herbs	Frequency
當歸	22
熟地黃	18
甘草, 川芎	17
茯苓	16
白芍藥	15
生薑	12
白朮	11
人參, 何首烏, 生地黃	10
大棗	9
羌活, 澤瀉	8
蔓荊子, 柴胡, 黃芩, 附子	7

防風, 枸杞子, 牡丹皮, 山藥, 桂枝	6
山茱萸, 半夏, 黃芪, 羌活, 赤芍藥, 荊芥, 牛膝, 黑芝麻, 桑椹子	5
細辛, 薄荷, 女貞子, 大黃, 木瓜, 桔梗, 白芷, 旱蓮草, 蜀椒, 菊花, 側柏葉	4
苦參, 桑白皮, 梔子, 黃連, 黃柏, 滑石, 石膏, 芒硝, 桃仁, 紅花, 零陵香, 五味子, 麥門冬	3
連翹, 麻黃, 甘松, 天麻, 萆薢, 豬苓, 補骨脂, 紫河車, 蘭朮, 肉桂, 龍骨, 牡蠣, 薏苡仁, 白鮮皮, 丹參, 藿香, 天門冬, 香附子, 遠志, 海艾, 雄黃, 知母, 蛇床子, 訶子皮, 淫羊藿, 肉桂蓉, 五倍子, 白礬, 羊糞, 白鴿糞, 蔥白	2
白蒺藜, 生首烏藤, 車前子, 續斷, 麝香, 東引茱萸根, 苦竹葉, 牡荊實, 蒺藜子, 大麻子仁, 童子小便, 桑上寄生, 膽礬, 青胡桃皮, 酸石榴皮, 木瓜皮, 東引桃皮, 豬牙皂角, 桑葉, 赤石脂, 羊肉, 松瀝, 朱砂, 水銀, 王不留行, 通草, 枇杷葉, 百葉, 浸香油, 沈香, 沒石子, 躑躅花, 覆盆子, 丁香, 卷柏, 藁木, 小麥, 白芷, 涸膠, 稀莖草, 金銀花, 杜仲, 懷慶生地, 金櫻子, 圭根, 馬鬚膏, 吳麻油, 感棗根白皮汁, 松葉, 芬草, 獨活, 炒酸棗仁, 柏子仁, 巴戟天, 蒼朮, 蒼耳子, 玄參, 黃精, 骨碎補, 冬桑葉, 鹿角膠, 血餘炭, 枳實, 黨參, 地骨皮, 黃米, 糯米, 鷄血藤, 黑豆, 陳皮, 松脂, 雌黃, 疏黃, 鷄糞白, 白蜜, 豬脂, 鐵分, 枳殼, 天麻, 柏子仁, 梧葉, 升麻, 神麴, 蠶砂, 蟬蛻, 膠飴, 芭蕉油, 豬鬚膏, 熊脂	1

6. 이번 조사에 포함된 약물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 Herbal medicine's classification of mentioned herbs

Classification	Herb
解表藥	發散風寒藥 生薑(12), 防風(6), 桂枝(6), 羌活(5), 荊芥(5), 細辛(4), 白芷(4), 麻黃(2), 葱白(2), 藁木, 蒼耳子
	發散風熱藥 蔓荊子(7), 柴胡(7), 薄荷(4), 菊花(4), 桑葉, 升麻, 蟬蛻
清熱藥	清熱瀉火藥 石膏(3), 梔子(3), 知母(2)
	清熱燥濕藥 苦參(3), 黃芩(7), 黃連(3), 黃柏(3), 白鮮皮(2)
	清熱涼血藥 生地黃(10), 牡丹皮(6), 赤芍藥(5), 玄參
	清熱解毒藥 連翹(2), 金銀花
瀉下藥	清虛熱藥 地骨皮
	攻下藥 大黃(4), 芒硝(3)
祛風濕藥	潤下藥 麻子仁
	祛風濕 獨活, 蠶砂
	止痺痛藥 獨活, 蠶砂
芳香化濕藥	舒筋活絡藥 木瓜(4), 稀莖草
	祛風濕 強筋骨藥 桑寄生
利水滲濕藥	蒼朮, 藿香(2)
	利水退腫藥 茯苓(16), 澤瀉(8), 豬苓(2), 薏苡仁(2)
溫裏藥	利尿通淋藥 滑石(3), 萆薢(2), 車前子, 通草
	附子(7), 蜀椒(3), 肉桂(2), 丁香,
消食藥	理氣藥 甘松(2), 香附子(2), 陳皮, 枳實, 枳殼, 沈香
	神麴
活血祛瘀藥	止血藥 涼血止血藥 側柏葉(4)
	川芎(17), 牛膝(5), 桃仁(3), 紅花(3), 丹參(2), 王不留行, 卷柏, 鷄血藤
化痰止咳平喘藥	溫化寒痰藥 半夏(5)
	清化熱痰藥 桔梗(4), 枇杷葉
	止咳平喘藥 桑白皮(3)
安神藥	龍骨(2), 遠志(2), 朱砂, 酸棗仁, 柏子仁,
	平肝藥 平肝息風藥 天麻(2)
開竅藥	平肝潛陽藥 牡蠣(2), 白蒺藜
	麝香
補益藥	補氣藥 甘草(17), 白朮(11), 人參(10), 大棗(9), 山藥(6), 黃芪(5), 黨參, 蜂蜜
	補陽藥 羌活(8), 骨碎補(2), 紫河車(2), 蛇床子(2), 淫羊藿(2), 肉苁蓉(2), 鹿角膠, 巴戟天, 杜仲, 續斷, 補骨脂, 胡桃肉
	補血藥 當歸(22), 熟地黃(18), 白芍藥(15), 何首烏(10)
補陰藥	枸杞子(6), 黑芝麻(5), 桑椹子(5), 女貞子(4), 旱蓮草(4), 麥門冬(3), 天門冬(2), 黃精

收瀉藥	止瀉藥 澀精 縮尿 止帶藥	訶子(2), 五倍子(2), 赤石脂, 石榴皮, 山茱萸(5), 五味子(3), 白礬(2), 金櫻子, 覆盆子,
湧吐藥		膽礬
外用藥		硫黃, 砒石, 雄黃(2)
기타		零陵香(3), 藺茹(2), 海艾(2), 羊糞(2), 白鴿糞(2), 黑豆, 雄牛膝, 浸香油, 木瓜皮, 生首烏藤, 松葉, 松脂, 東引茱萸根, 牡荊實, 痰藜子, 童子小便, 小麥, 白鴿糞, 東引桃皮, 豬牙皂角, 羊肉, 松瀝, 水銀, 百葉, 沒石子, 躑躅花, 白砒, 酒膠, 懷慶生地, 圭根, 馬鬚膏, 吳麻油, 感棗根白皮汁, 芬草, 冬桑葉, 血餘炭, 黃米, 糯米, 雌黃, 鷄糞白, 豬脂, 鐵分, 梧葉, 芭蕉油, 苦竹葉, 熊脂

* 괄호 안은 인용 횟수

고찰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脫髮”, “鬼舐頭”, “油風”, “斑禿”, “白禿”, “赤禿” 등이 탈모증의 범주에 속한다. 탈모의 원인으로서는 腎虛, 肺氣虛, 氣血虛, 血虛, 血熱, 瘀血, 七情 등의 內因과 風邪, 風熱, 濕熱, 五味傷, 蟲, 火 등의 外因을 들고 있으며¹²⁾ 최근의 문헌에서는 이를 血熱生風, 肝腎不足, 瘀血阻絡, 血熱風燥, 濕熱上蒸, 血虛風燥^{28,32-35)}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침구요법과 약물요법, 약침요법과, 자락요법, 한약재추출물의 국소도포요법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탈모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의 탈모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12%에 이른다. 특히 성인 남성 가운데 20%인 500만-600만 명이 탈모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여성 탈모자도 8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³⁶⁾, 아직까지는 현재의 치료방법이 만족할 만큼의 치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탈모의 초발 연령이 점점 낮아짐을 감안해 볼 때,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의학계에서도 탈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약침을 이용한 연구^{3,4)}나 한약재 추출물을 이용한 국소도포요법에 대한 연구⁵⁻¹⁰⁾에 한정되어 있고 탈모의 치료에 이용되는 처방에 관한 연구나 탈모의 치료에 사용된 약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는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연구와 실험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탈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의학 문헌을 고찰하여 탈모의 치료에 사용되는 처방을 조사하고 이들 처방을 구성하는 약물을 분석하여 탈모의 치료에 빈용 되는 약물을 알아보았다.

隋唐代의 外臺秘要부터 현대의 서적까지 총 21종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탈모의 치료에 많이 사용된 처방은 神應養眞丹(湯)과 六味地黃丸(湯)이 7회로 가장 많았고, 防風通聖散加減方이 6회, 海艾湯이 4회, 四物湯, 八物湯, 桂枝加龍骨牡蠣湯, 通竅活血湯이 3회씩 언급되었다. 그밖에 地黃酒, 天門冬膏, 黃芪建中湯, 滋榮散, 三聖膏, 菊花散, 巫雲散, 二仙丸, 生禿烏雲油, 金珠綠雲油, 大柴胡湯, 逍遙散, 祛濕建髮湯, 涼血消風散이 각각 2회씩 사용되었고, 이외의 처방은 1회씩 언급되었다.

많이 사용된 약물은 當歸가 22회로 가장 많았고, 熟地黃이

18회, 川芎, 甘草가 17회, 茯苓이 16회, 白芍藥이 15회, 生薑 12회, 白朮이 11회, 何首烏, 生地黃, 人蔘이 10회, 大棗가 9회, 澤瀉, 菟絲子が 8회, 附子, 柴胡, 黃芩, 蔓荊子が 각각 7회, 防風, 枸杞子, 牡丹皮, 山藥, 桂枝가 각각 6회, 山茱萸, 半夏, 黃芪, 羌活, 赤芍藥, 荊芥, 牛膝, 黑芝麻, 桑椹子が 각각 5회, 細辛, 薄荷, 女貞子, 大黃, 木瓜, 桔梗, 白芷, 旱蓮草, 菊花, 側柏葉이 각각 4회, 苦參, 桑白皮, 梔子, 黃連, 黃柏, 滑石, 石膏, 芒硝, 桃仁, 紅花, 蜀椒, 零陵香, 五味子, 麥門冬 등이 각각 3회, 連翹, 麻黃, 甘松, 天麻, 萆薢, 豬苓, 補骨脂, 紫河車, 藺茹, 肉桂, 龍骨, 牡蠣, 薏苡仁, 白鮮皮, 丹參, 藿香, 天門冬, 香附子, 遠志, 海艾, 雄黃, 知母, 蛇床子, 訶子皮, 淫羊藿, 肉蓯蓉, 五倍子, 白礬, 羊糞, 白鴿糞, 蔥白 등이 2회씩 사용되었고, 이외의 약물들은 1회씩 언급되었다. 단방처방에 사용된 약물은 旱蓮草, 半夏, 天門冬, 桑椹子, 梧葉, 芭蕉油, 胡麻, 熊脂, 白鴿糞, 羊糞, 羊肉, 豬鬃膏 등이 있었다.

다용된 약물을 본초학적인 분류로 나누어보면 補益藥, 解表藥, 清熱藥, 利水滲濕藥, 活血祛瘀藥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補血藥에 속하는 약물 4종이 65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補氣藥 8종이 60회, 解表藥에 속하는 發散風寒藥 11종이 48회, 發散風熱藥 7종이 25회 사용되었으며, 利水滲濕藥 8종은 35회, 活血祛瘀藥 8종은 33회, 補陰藥 3종은 30회, 補陽藥 12종은 24회 사용되었고 清熱藥 15종 중 清熱涼血藥에 속하는 4종이 22회 사용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다용된 약물의 본초학적인 특성에 비추어 탈모의 病因, 病機를 이해하고 관찰하면, 탈모치료를 위한 새로운 처방을 구성하거나 탈모에 대한 임상연구나 실험연구에 쓰일 약물의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血은 人體內의 精微로운 물질로부터 化生하여 전신의 조직, 기관에 營養과 滋潤作用을 한다.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髮者血之餘”, “血盛則髮潤 血衰則髮衰”라 하였으니³⁷⁾ 血氣가 旺盛하면 모발 역시 旺盛하고 血氣가 虛少하면 모발도 稀少 혹은 脫落한다. 따라서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성한 血氣가 필요하다. 탈모의 치료에 사용된 약물들을 가운데 補血藥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氣는 元氣, 營氣, 衛氣 등이 있다. 元氣는 眞氣라고도 하며 腎에 根源을 두고 腎中精氣에서 化生하여 三焦의 通路를 거쳐 全身에 도달하는데, 人體 生命活動의 原動力이 되는 人體에서 가장 중요한 氣이다. 元氣는 모발의 生長作用을 자극하고 촉진한다. 營氣는 榮氣라고도 하며 혈액과 함께 脈中에 並行하는데 둘은 나눌 수는 있으나 떨어질 수 없으므로 營血이라 한다. 營血은 모발에 대해 營養作用을 한다. 衛氣는 衛陽이라고도 하며 脈外의 皮膚分肉之間을 行하고 外邪가 毛根 밑에 침입하여 모발을 손상하는 것을 防禦하고 아울러 汗을 배설하고 체온의 상대적인 恒常性을 유지하며 모발로 하여금 적당한 生長環境을 갖도록 한다¹⁾. 따라서 腎中精氣가 부족하여 元氣가 衰하거나 營血이 不足하면 모발의 生長을 촉진하지 못하고 모발을 營養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 腎中陽氣가 衰하거나 肺氣의 宣發作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衛氣의 기능이 失調되어 風, 寒, 濕 등의 邪氣가 侵入하여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탈모의 치

료에 補氣藥이 多用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衛氣가 虛弱하여 體表가 堅固하지 않으면 그 虛를 틈타 邪氣가 人體의 皮毛, 肌部腠理, 衛氣 등 얇은 부위에 侵入하게 되는데, 邪氣가 肌表에 停留하면 辛溫解表나 辛涼解表 등의 發汗解表의 방법을 사용하여 表邪를 疎散시켜야 한다. 따라서 탈모의 치료에는 發散風寒藥이나 發散風熱藥이 多用되는 것이다.

脾는 情志에 있어 思를 主管하니 思慮가 過度하면 脾失健運하여 水濕이 中焦에 貯藏되고 위로 頭部를 侵犯하여 毛髮根을 侵蝕해서 毛髮의 營養吸收을 沮害함으로써 탈모를 유발하게 된다¹⁾. 이런 경우 탈모의 치료에 利水滲濕藥이 많이 쓰이게 된다.

血의 循行은 반드시 氣의 推動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일 氣의 機能이 失調되어 氣虛하거나 氣滯하게 되면 반드시 血行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어 瘀血한 상태를 일으킨다³⁸⁾. 지나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氣虛나 氣滯로 인한 탈모가 발생하면 탈모의 치료에 活血祛瘀藥이 사용된다.

<素問·五臟生成篇>에 이르기를 “腎之合骨也, 其榮在髮也”라고 했는데, 이는 頭髮의 榮枯가 腎精의 盛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髮爲血之餘”라고 하는 말도 있어서 血이 旺盛하면 頭髮이 茂盛하고 潤澤하게 되는데, 사실상 精과 血은 그 來源이 동일하여 精이 充足하면 血이 旺盛해지므로 결국 頭髮을 營養하는 것은 血이지만 그 生機의 根源은 腎에 있게 된다³⁹⁾. 그러므로 탈모의 치료에 補陰藥과 補陽藥이 자주 사용된다.

邪氣가 人體에 侵入하면 正氣가 邪氣에 對抗하는데, 邪氣가 비교적 盛할 경우에는 邪氣와 正氣가 相爭하는 과정에서 熱이 발생하게 된다. 이 熱이 營血에 들어가면 營血이 모발을 營養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탈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탈모의 치료에 清熱藥이 多用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清熱涼血藥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탈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의학 문헌을 조사하여 문헌에 수록된 처방과 구성 약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 조사대상이 21종의 문헌에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에 포함된 처방 가운데 개개 약물의 정확한 용량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君臣佐使의 개념과 같은 처방 내에서 약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

隋唐代의 外臺秘要부터 현대의 서적까지 총 21종의 문헌을 고찰하여 탈모의 치료에 이용되는 처방과 이를 구성하는 약물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탈모의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은 當歸로 22회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熟地黃이 18회, 川芎, 甘草가 17회, 茯苓이 16회, 白芍藥이 15회, 生薑 12회, 白朮이 11회, 何首烏, 生地黃, 人蔘이 10회, 大棗가 9회, 澤瀉, 菟絲子が 8회, 附子, 柴胡, 黃芩, 蔓荊子が 각각 7회, 防風, 枸杞子, 牡丹皮, 山藥, 桂枝가 6회, 山茱

萸, 半夏, 黃芪, 羌活, 赤芍藥, 荊芥, 牛膝, 黑芝麻, 桑椹子が 각각 5회로 多用된 약물에 속했다.

7회 이상 多用된 약물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四物湯, 四君子湯, 二陳湯, 六味地黃丸의 구성약물을 제외하고 탈모에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된 약물로는 何首烏, 生地黃, 菟絲子, 柴胡, 黃芩, 蔓荊子, 附子 등이 있었다.

多用된 약물을 본초학적인 분류로 나누어 보면 補益藥이 32종 179회, 解表藥이 18종 73회, 清熱藥이 15종 52회, 利水滲濕藥 8종과 活血祛瘀藥 8종으로 각각 35회와 33회 등의 순으로 많이 쓰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후의 단일약재의 실험연구나 임상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약제로는 當歸, 熟地黃, 川芎, 甘草, 茯苓, 白芍藥, 生薑, 白朮, 人蔘 등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들이 있었고, 탈모에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된 何首烏, 生地黃, 菟絲子, 柴胡, 黃芩, 蔓荊子, 附子 등의 약물도 향후 탈모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약물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謝遠明, 姜 曉 編. 脫毛의 中醫防治. 西安:陝西科學技術出版社, p 1, 12, 15, 1988.
2. Headington, J.T. Histological findings in androgenic alopecia treated with topical minoxidil. Br J Dermatol. 107(Suppl. 22):20-21, 1982.
3. 이승원, 고정민, 이소영, 이민호, 김영진, 이승훈, 유승연, 정지윤, 권효정, 이윤호. 원형탈모로 시작된 전신형탈모 환자에 대한 봉독약침 효과에 관한 임상증례보고. 대한침구학회지 25(6):163-173, 2008.
4. 김경운, 서정철, 이경민, 임성철, 정태영, 한상원. 봉약침과 홍화약침을 이용한 圓形脫毛症 치험 1례. 대한약침학회지 7(2):91-96, 2004.
5. 김남권, 두인선, 문연자, 우원홍. 生毛根이 탈모에 미치는 임상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1):270-278, 2005.
6. 이정환, 강여름, 정연호, 안택원. 한방모발관리 제품을 이용한 광범위한 원형 탈모증 치험1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2(2):269-280, 2009.
7. 김현우, 정용준, 이동규, 한상근, 정의수, 김희택, 강세찬. DL-HGF를 주성분으로 한 ethosome 및 liposome 제형화합물이 발모 촉진 활성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2(1):1-10, 2009.
8. 권강주, 이창현, 이문원, 문연자, 최두호, 이학재, 김호민, 우원홍. 四物湯加味方이 원형탈모 생쥐의 발모효과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3):696-704, 2005.
9. 이문원, 조한영, 김태현, 김남석, 정한술, 이창현. 자발적인 원형탈모 생쥐(C57BL/6N)와 정상적인 생쥐에서 斑蝥와 骨碎補 추출 혼합물의 發毛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4):778-790, 2008.
10. 정일국, 조한영, 김태현, 김남석, 정한술, 이창현. 半夏抽出物

- 이 자발적 원형탈모 생쥐와 정상 생쥐의 발모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동역생리병리학회지 23(1):84-92, 2009.
11. 李暎鐘. 脫髮에 관한 韓醫學 文獻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6(1):141-159, 1995.
 12. 장해영, 최관호, 김성현, 권기록, 김병우. 脫毛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한약침학회지 5(2):92-108, 2002.
 13. 김영진, 문정배, 이태후. 脫毛의 鍼灸治療에 대한 經絡, 經穴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7(3):222-231, 2006.
 14. 王 壽. 外臺秘要. 서울, 교유주보사, pp 854-858, 1975.
 15. 越 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778-1779, 1987.
 16. 李 梴. 醫學入門. 台北, 台聯國民出版社, p 442, 1982.
 17.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 307-310, 1988.
 18. 陳實攻.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256-257, 268-269, 1983.
 19. 陳士澤. 石室秘錄. 서울, 杏林出版社, p 40, 1982.
 20. 祁 坤. 外科大成. 台北市, 文光圖書有限公司, p 211, 1982.
 21. 薛 瑜. 醫宗金鑑. 台北, 大中國圖書公司, pp 69-70, 1984.
 22. 汪 璠. 名醫類案. 廣業書局有限公司. p 196, 1968.
 23. 楊廣仁. 金櫃要略重篇. 世一書局 p 69, 1972.
 24. 蔡炳允. 韓方外科. 서울, 고문사, pp 285-286, 1971.
 25. 辛民敎 編譯. 最新漢方診療. 서울, 영림사, p 81, 1996.
 26. 程國彭. 醫學心悟. 서울, 友聯出版社, p 289, 1962.
 27. 金定濟. 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p 302, 1974.
 28. 中醫研究院 主編. 中醫症狀鑑別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495-496, 1987.
 29. 김갑성, 김명동, 김윤범, 김장현, 김중호, 이원철, 임양근, 정찬길. 實用東西醫學臨床總書. 서울, 정담, pp 337-347, 2001.
 30. 전국한의과대학 피부외과학 교재편찬위원회. 韓醫皮膚外科學. 부산, 선우, pp 508-511, 2007.
 31. 朴炳昆. 增補 韓方臨床四十年 10판. 서울, 書苑堂, pp 453-454, 1996.
 32. 楊思澍 等 主編. 中醫臨床大全.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pp 911-912, 1965.
 33. 陳貴廷, 楊思澍 主編. 實用中西醫結合診斷治療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 1508, 1510, 1991.
 34. 顧伯康 主編. 中醫外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309-312, 1987.
 35. 李鳳敎 編譯. 症狀鑑別治療. 서울, 成輔社, pp 773-774, 1991.
 36. 윤신혁. 다양한 발모성장 물질에 대한 동물 실험 및 분자생물학적 접근: 아젤라인산 및 비타민 B6의 효과. 대한성형외과학회지 35(5):507-513, 2008.
 37. 陳夢雷. 醫部全錄. 서울, 成輔出版社, p 1561, 1982.
 38. 金完熙, 崔達永 共編.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pp 61, 286-287, 2004.